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⑥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⑧ 00 아침경제 끝난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더더 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⑨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때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⑪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특보 메르스 1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00 수목드라마 (여생불리)(재)	00 주말 드라마 (여자를 울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재)
⑫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00 SBS12뉴스 50 더더 365
① 50 뉴스특급	00 대조영(재) 55 시청자 갈릴 우리사는 세상	00 다큐멘터리 3일(재)	30 키즈 사이언스5(재)	00 건강클리닉
②	00 이웃집 찰스 스페셜 55 야생악기(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독톡 키즈쿨	00 영재 발굴단(재)
③ 00 직인직설	00 한국인의 밤상(재) 55 튜튼생활채널	45 후토스(재)	00 MBC 뉴스 10 바다의 금동이 40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사이드
④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방학특선 통풍의 왕국 야생악기 프로젝트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공대공	25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구르미 탐구생활
⑤ 4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영상앨범 선(재)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올론즈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갈릴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더더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⑦ 10 아내가 뽀얏다(재)	00 KBS 뉴스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위대한 조강지처) 55 MBC 뉴스데스크 (돌아온 황금복)	10 시시타치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⑧ 20 나는 몸신이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죽을 지켜라)	30 반려 동물 극장 단편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딱 너 같은 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⑨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⑩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 사람들 55 국민대립정 우리가	00 수목드라마 (엄생불리)	00 수목미니시리즈 (밤을 걷는 선비)	00 드라마 스페셜 (가면)
⑪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백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⑫ 50 구원의 밤상(재)	50 동행(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특선다큐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아리	35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 생생 영어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15:15 두끼 탐험대	19:50 사선에서
05:40 성공시대 가능한한국인(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45 부릉! 부릉! 부릉미즈	20:50 세계대마가행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6:00 덩중당 유치원(재)	<모스크바에서 우랄까지 2500km 대장정>
07:15 책과 광(재)	11:20 세계대마가행	16:20 윈더볼츠	21:30 한국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우당탕탕 아이쿠	<지리산 개국기행>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결격 다큐멘터리	16:45 책과 광	21:50 EBS 다큐 프라임
08:00 덩중당 유치원	13:05 지체장애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결혼의 진화>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17:15 풍선 코끼리 발루보	22:45 극한직업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3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17:30 두더지공	23:35 세계견문록 아름다운
08:50 코코몽 3	13:5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17:45 풍선 코끼리	<갈의 역사>
09:05 윈더볼츠(재)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퓌! 보니하니	24:10 한국영화특선
09:20 풍선 코끼리 발루보	14:30 머털도사	19:00 곤	<갯마을>
09:35 이팝 스페이스 정글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 II-읽어보기>	12:10 올림픽스 <국어 II-읽어보기>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물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B>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픽스 <화물과 통계>
03:20 " <수학 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17:2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수학 II>
05:00 뉴탐스런 <화학 I>	17:2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 I>	18:10 EBS N제 <수학A>
06:40 " <세계지리>	19:20 " <동아시아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연주의 영어>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 <이은주의 수학 II>	<화법과 작문&독서와 문법 A>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	21:50 " <문학 A>
11:00 " <수학 I>	22:30 박복의 이슈를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중학단기특강 <영어1 독해 240제>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50 " <수학1 280제>	17:20 만점왕 평가문제집
10:30 EBS TV 중학 <도덕>	<전과목 5-1>
11:10 중학단기특강 <영어2 독해 240제>	18:00 중학단기특강 <영어3 독해 240제>
11:50 " <수학2 300제>	18:40 " <수학3 300제>
12:30 실전 취업가이드	19:20 필독중학국어 <시>
13:00 데일리 시술형 수학	20:00 EBS 인문학특강
13:10 등업신공 <사회 I>	20:50 EBS 기획시리즈
13:50 " <사회 II>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4:30 " <역사 I>	22:00 등업신공 <역사 2>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22:40 " <과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2일(음 6월 7일 己亥)

子	48년생 현재의 정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60년생 이번 한 번에 한정된 것이나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72년생 기본을 상하게 하는 이가 보인다. 84년생 태연자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 행운의 숫자 : 01, 19	午	42년생 만족도 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주목하자. 54년생 눈앞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다면 많은 손실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66년생 고차원적으로 활용하는 단계로 가고 있나. 78년생 여자구니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07, 34
丑	49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지나. 61년생 바빠 하러 할수록 실수가 잦은 법이다. 73년생 과거에 만난 인연이 현재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다. 85년생 정치하게 처리할 것과 대중할 것이 따로 있나. 행운의 숫자 : 82, 44	未	43년생 반복될 수도 있는 구도여서 실망하기에 충분한 마당이다. 55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만한 일이 보인다. 67년생 이것저것 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때다. 79년생 일이 지난 후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나. 행운의 숫자 : 41, 85
寅	38년생 힘들더라도 시종일관하여야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50년생 예견했던 바가 실제로 발생하였다. 62년생 반작용 할 수도 있나. 74년생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86년생 순조로움을 더 하리라. 행운의 숫자 : 47, 75	申	44년생 행운의 역동성이 박자를 맞추듯 다가오는 정면이다. 56년생 진중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8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다. 80년생 숨은 재주로 인한 이익이 따르리라. 행운의 숫자 : 79, 26
卯	39년생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함이 옳다. 51년생 이미 지루한 시간과의 싸움이 전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63년생 신바람 나리라. 75년생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87년생 양자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88, 32	酉	45년생 전후 사정을 파악해 보고 나서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57년생 지혜를 짜내어 요령껏 풀어나가야만 한다. 69년생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호기심을 열라. 81년생 여권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행운의 숫자 : 18, 11
辰	40년생 과잉 확신은 엄청난 오류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52년생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들이 갖추어졌다. 64년생 반가운 이로부터 듣는 말이 있을 것이다. 76년생 내키지 않는다면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14, 87	戌	46년생 우려되는 점이나 모순점을 간파하지 말고 확실하게 처리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자. 58년생 고난이도의 일이나 신경 써야겠다. 70년생 사실만으로써 대처자. 82년생 상대의 반응은 의외로 미약하였다. 행운의 숫자 : 10, 88
巳	41년생 알고도 가만히 있음이 나올 것이다. 53년생 잘 풀려 나가는 양상이나. 65년생 고비는 넘겼지만 병신할 대목은 아니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 77년생 기본적인 원리에 진력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3, 78	亥	47년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도를 조절하자. 59년생 힘을 들이지만 보람은 느낄 것이다. 71년생 일시적인 현상을 차치하고 흐름에 비추어 두자. 83년생 어느 쪽에도 기대하지 못하는 안갯속에 임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9, 4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연기는 삶의 즐거움
항상 자신감 넘치죠”

전지현, 영화 ‘암살’서 존재감 발산

전지현(34·사진)에게서 스타로서의 존재감과 배우로서의 무게감이 균형을 잡기 시작한 시점을 따져보면, 많은 이들이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2012년)을 꼽을 것이다.

예쁜 얼굴이 성형수술 덕이 아니냐는 말에 “이렇게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라고 외치는 ‘도둑들’의 예니콜은 배우 전지현에게 딱 맞는 옷이었고, 그의 연기에 대한 호평도 쏟아졌다.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안긴 최동훈 감독에게 보답하듯 전지현은 최 감독의 차기작 ‘암살’ 출연을 시나리오가 나오기도 전에 결정했다.

20일 오후 종로구 삼청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전지현은 이런 결정에 대해 “일말의 걱정도 없었다”고 했다.

“‘도둑들’ 때 감독님과 제가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 애매한 부분까지 잘 맞더라고요. 공감대가 형성되니 연기하며 희열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한번은 촬영하는데 감독님이 저한테 막 달려와 ‘숨도 쉬지 말고 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받아들이고 나중에 모니터를 보니 연기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연기하는 게 새롭게 다가온 경험이었어요.”

‘도둑들’에서 받은 영향은 다음 작품이었던 류승완 감독의 영화 ‘베를린’(2012)에 이어 국내를 넘어 중국에서 대박을 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2013)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두 작품에서의 성과에 대한 호평은 다시 이번 작품 ‘암살’에서 연기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일의 반 이상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암살’을 ‘베를린’이나 ‘별그대’ 전에 맡았다면 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시기가 좋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같은 작품, 같은 역할이라도 작년 표현한 것과 올해 표현하는 게 다르죠.”

‘암살’에서 배우 전지현에게 주어진 역할은 독립군으로 활동하는 저격수 이상의 것이다. 남성 캐릭터 특에 양념처럼 들어간 여성 캐릭터가 아니라 ‘이름도 남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삶’을 그리는 이 영화에서 독립군 전체를 상징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다.

전지현은 이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었다”고 했다.

“한국영화에서 나오기 쉽지 않은 캐릭터이고 저한테도 얼마 안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배우 전지현이 캐릭터에 흡입이 되기 싫었어요. 안운운을 준비할 때 감독님한테 ‘저 업그레이드하려 갈게요’라고 말했는데 이 역할을 따지고 들어가니 끝도 없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실 위에 픽션을 만든 것이니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역할로 좀쳐 나갔어요. 그러면서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에 집중하는 현재의 삶이 즐겁다고 말하는 그의 말은 진



심으로 느껴졌다.

“사람이 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란 게 다 뻔한데 미처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연기를 하면서는 배가 고프지 어디가 아픈지 모를 정도로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연기를 하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게 삶에 낙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재미있으니 즐거움을 느끼면서 연기를 하면 표현도 더 좋아지고 연기의 성과도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스타 전지현에게 첫 번째 찾아온 전성기는 ‘엽기적인 그녀’(2001)와 CF에서 현란한 테크노댄스 청춘의 매력과 섹시미를 자랑하던 2000년대 초중반이었다.

그 당시에 대해 전지현은 “어렸다”고 말하며 웃었다.

“그때도 자신감이 있었지만, 잘하려고만 했지, 내가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를 때였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걸 하는 거였지 그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이후 지금 누리고 있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까지 수년간은 손에 꼽을 만한 대표작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 해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렸을 때는 오히려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해’ 이러거나 세상이 우수워질 때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냥 배우로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때만 특별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집에서 똑같아요. 다 제 손으로 해요. 제가 부지런한 성격이라 가만히 앉아 있지 않거든요. 어디에 뭘 정리해 놓아 놓았는지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소녀시대’의 모든 것 보여드릴게요”

온스타일 ‘채널 소녀시대’ 제작발표회

“시간이 지나면서 멤버들의 개성은 더 뚜렷했지만 서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도 했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보시면 ‘소녀시대’도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실거예요. 소녀시대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티파니)

결그룹 소녀시대가 만드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채널 소녀시대’의 막이 올랐다. 온스타일에서 21일부터 방송되는 ‘채널 소녀시대’는 소녀시대 멤버 8명이 총 출연하는 최초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멤버들은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콘셉트, 혹은 다뤄보고 싶은 분야를 주제로 각각의 채널을 진행한다.

소녀시대는 21일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아낌없이 보여 드려겠다”며 “소녀시대의 유쾌한 모습을 기대해달라”고 했다.

“채널 소녀시대”는 최정삼 결그룹 소녀시대의 멤버가 모두 출연해 민 넷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방영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연출을 담당한 오관진 PD에게 기획의도를 물었다.

그는 “소녀시대와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밝히니 모두 ‘전생애 나라를 구했나’고 하더라”며 “정말 열정적으로 섭외했고, 소녀시대도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그룹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당연히 소녀시대를 1순위로 생각했다”며 “소녀시대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소녀시대 멤버들은 각각 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태연은 ‘셀프 마스터’에서 셀프 네일, 셀프 염색 등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공유하고, ‘오늘 뭐입지’를 진행하는 수영은 자신의 옷장을 공개하며 패션에 관한 팁을 전달한다. 유리는 ‘유리 앤(앤) 바디쇼’에서 피부 관리 비법을 공개하고, 써니는 ‘명랑소녀 도전기’에서 3분 퀵 메이크업, 번지점프 등에도

전한다. 티파니와 효연도 각각 ‘티파니 X’, ‘프라이빗 흥라이프’를 이끈다.

이중 서현이 진행하는 ‘막내의 이종생활’은 제목만큼 관심을 끈다.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 걸 즐기는 서현은 자신의 채널에서 변장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누린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서현임을 알아차리면 ‘막내의 이종생활’은 방송이 종료된다.

서현은 “연예인이라는 직업 때문에 늘 숨기고 다녔고, 대중과 가까이 지내지 못했다”며 “모든 것을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 거리를 활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 방송에서 가발을 쓰고, 메이크업도 지우는 등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며 “가로수길에 갔는데 정말 놀랄 일이 있었”이라며 기대감을 높였다.

윤아는 ‘남남 TV’에서 직접 요리로 나선다. 평소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윤아는 시간이 없어 손수 요리를 한 적이 없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요리 실력을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멤버들도 ‘남남 TV’는 윤아의 욕망을 담은 채널이라며, 자신의 채널 외에 가장 해보고 싶은 채널로 꼽았다.

윤아는 “요즘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가 높아서 선택한 건 아니다”라며 “요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고른 겁이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관진 PD는 “‘채널 소녀시대’는 개인 채널로만 이뤄진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며 “소녀시대는 8명이 모였을 때가 가장 재밌다. 모든 멤버가 다 모였을 때 어떻게 노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녀시대 리얼리티의 장점은 멤버 중 이끄는 누군가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저의끼리 노는 모습이 좋아요. 이제는 서로에 대해 잘 안지각하는 매력도 잘 살릴 수 있을 거 같아요.”(수영)

연출뉴스